

변환기 농촌사회교육실천의 과제와 방향에 관한 연구

정지웅* · 김성수* · 서규선** · 림영철*** · 정진석****

(*서울대 농생대 농촌사회교육전공 교수, **농촌진흥청 농촌지도관)

(***제1가나안농군학교장, ****안성 농협지도자교육원장)

A Study on Task and Direction of Rural Adult Education Practices in Transition

Cheong, Ji-Woong* · Kim, Sung-Soo* · Suh, Gyu-Sun** · Lim, Yung-Chul*** · Chung, Jin-Suk****

*Dept. Agricultural Education Coll. of Agri & Lifescience, Seoul National Univ., Suwan 441-744, Korea

**RDA, Suwan 441-100, Korea,

***Ganaan Farmer School, Hanam 465-170, Korea

****Ag. Coop. Leaders Training Inst., Ansong 465-820, Korea.

Abstract

This study had three objectives: (1) to review rural changes for last 30 years of transitional period, (2) to overview rural adult education practices in Korea, and (3) to draw task and direction of rural adult education in the future. Meeting of rural adult education experts including two overseas scholars and most of all internal scholars and practitioners was made in late October, 1993 to intensively discuss on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n the wake of rapid rural changes characterized by (1) sharp reduction of rural farm population, the young in particular, (2) insecurity of rural family, (3) relative economic disadvantages, (4) lack of farmers part in agri-business and agro-industry, (5) lack of competent ability of farm products in globalizing market system, and (6) inconsistent agricultural policy, the rural adult education offered mainly by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s an extension arm of the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such as the Ganaan Farmers School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 Leaders Training Institute, have played considerably pivotal roles for farmers to adapt to the changing rural society.

In order to strengthen the rural adult education, however, following tasks/directions are still in need to improve and to initiate desirable changes: (1) development of education for rural people to be self-directed in learning toward building welfare and self realization, (2) balanced rural adult education programs between economic and non-economic sectors, (3) rural people's participation in all courses of education from planning to evaluation, (4) privatization and professionalization of rural adult education organizations, (5) information services and system for a variety of rural adult education programs, (6) development of more practical and participatory education programs, and (7) emphasis on sustainable agriculture and environment protection.

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1) 지난 30여년간의 농촌사회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고, (2) 이 동안의 농촌사회교육 실천이 어떻게 적응하여 왔는가를 탐구한 후, (3) 앞으로의 농촌사회교육의 과제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변환기의 기간을 30년으로 잡은 것은 지난 1960년대초부터 90년대초 까지가 우리나라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국제화의 꾸준한 변화를 가져온 기간이라 보았기 때문이고, 사회교육을 탐구하기에 앞서 농촌사회의 변화를 살펴 보고자 한 것은 농촌사회교육의 시대적 상황과 변화에의 적응행태를 이해해 보기 위해서이다. 농촌사회교육의 실천기관은 官, 半官半民, 民間團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II. 본론

1. 농촌사회의 변화

지난 30년간(1960-90) 농촌인구는 1960년 전체인구의 64% 이던 것이 1990년에 26%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이러한 감소율에 있어서 청소년이나 아동층의 감소비율이 훨씬 높으며 반대로 농촌에서는 노인층의 비율이 크게 늘어 농촌이 노령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적령기 농촌청년들의 이혼향도가 급증하고, 특히 신부후보를 농촌에서 찾아보기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또 일단 결혼이 성립이 되었다 해도 농촌가정생활을 원만하게 영위하지 못하여 이혼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노인만 살던 가족이 사라짐과 함께 농촌가족은 붕괴의 위험마저 생기기예 이른 것이다.

농촌지역의 주산업인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조건인 농지규모와 수리조건을 보면 점차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전체의 경제발전속도에 비하여 그 생산조건과 소득구조가 상대적으로 크게 불리해지고 있다. 농가의 소득원도 지난 30년간 농외소득비율이 19.7%(1961)에서 27.9%(1991)로 크게 늘긴 하였지만(농촌진흥청, 1993), 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도시생활가족원으로 부터의 이전수입(송금)이고 농촌의 산업구조변경에 기초한 것은 매우 적으며, 아직도 농가소득이 도시인의 평균소득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농촌에 많은 공장이 유치, 설립되기도 하였지만 이

들 공장의 요직은 도시인들에 의하여 차지되었고 농촌인들은 일용노동이나 수위와 같은 저임하위직 한두자리만을 겨우 얻는 정도였다. 많은 경우 이들 공장은 지역에 공해를 방출시켜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례가 많았지 경제적 기여를 크게 하였다라는 사례는 별로 없다.

농산물 유통구조는 중간마진이 매우 커서 생산자나 소비자가 모두 불리한 처지에 있으며, 농산물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농산물 저장기술이 꾸준히 개발, 개선되어 왔으나, 최근에 세워진 많은 농산물 냉장회사는 대부분 도시 기업체에 의한 것이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1986년 한미통상결과 정부의 전매사업 품목인 담배까지 수입허가를 하게 되었고 그 후 계속 개방품목 수가 늘어났고, 1991년 말에는 농산물 수입 자율화율이 85%에 이르렀다. 이러한 농산물 수입개방은 1986년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논의 이후 강력히 추진되고 있고, 1990년대초 중국과의 수교정상화 이후 더욱 촉진되고 있으며, 1997년까지는 모든 농산물의 개방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제 1993년말 UR협상이 타결되어 농산물 수입개방은 물론 영농지원마저도 제한을 받게 되어 종래와 같은 농업보호 정책으로 농민을 지원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 대신 사회 복지차원에서의 대농민 정책이 강조될 것이다.

1988년부터 제 6 공화국에서는 민주화의 물결과 함께 농, 수,축협이 민주화가 상당한 정도 이루어졌고, 종래의 경지정리와 간척사업의 주체기관이었던 '농업진흥공사'를 '농어촌진흥공사'로 바꾸어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과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역점을 둔 새로운 농촌개발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농어촌 구조개선과 정주생활권 개발정책은 1993년 새 문민정부에서의 '신농정'이란 개혁정책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다.

2. 한국 농촌사회교육 실천의 발전

가. 농촌지도사업

우리 나라의 농촌지도는 미국식 농촌지도방식을 한국적으로 토착화시키려는 노력을 통하여 발달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농촌지도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농촌지도조직은 농사시험연구사업과 농촌지도사업이 동일 조직에 병합되어 연구결과와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급이 가능하고, 지도활동과 영농에서의 문제점을 연구사업

에 쉽게 반영할 수 있으며, 농촌지도사에 대한 연구결과의 교육과 훈련이 용이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조직은 한 사람의 기관장에 의하여 연구와 지도의 기능이 통솔되므로 시험장에서의 연구결과가 농촌지역의 적응시험과 농촌주민 수준에서의 실정과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고려를 등한히 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다.

둘째, 도와 시,군의 지방단위에서 농촌지도기구와 일반행정기구가 기능적으로 통합되어 농촌지도사업이 시장, 군수산하에 있기 때문에 농업행정과 농촌지도의 일원적 투입을 가능하게 한다. 지방단위에서의 농촌지도는 일반 농업행정을 사회교육적으로 지원하여 주고 그 대신 농촌지도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방행정기관에서 지원받게 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농촌지도가 농업행정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나 지도와 행정이 동일방향으로 투입이 될 때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농촌지도요원은 직제상으로 일반 행정요원과 분리시켜 지도사업의 전문적이고 교육적인 기능을 提高함과 동시에 농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농촌지도요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타분야의 농업관계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을 때는 농촌지도요원들에게 자부심을 높여 주나 그렇지 못할 때는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농촌지도기관은 농업계 학교와 횡적으로 협동하도록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의해서 농과대학, 농업전문대학, 농업계 고등학교와 겸임제도를 두어 교육자들이 농촌지도요원으로, 그리고 지도요원이 교육자로 활동하게 하며, 교육시설과 지도교재 등을 공동활용하며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지도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 나라 농촌지도는 교육적으로, 민주적으로, 그리고 협동적으로 전개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는 개선되어 나가야 할 여지가 많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변화하는 농촌사회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촌주민이 농촌지도사업의 계획, 실행, 평가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국회 및 도,시,군의 지방의회로부터 정책감사를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농촌주민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급 단위 '농촌지도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촌주민이 농촌지도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사업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농촌지도 추진주체 및 유사기능의 통합과 조정이 이루어져 지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농촌지도요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용제도와 보수규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촌지도요원의 전문, 특기화가 이루어져 개방화시대에 대처한 작목의 다양화와 기술개발에 능동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농촌지도사업의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의 직제는 농업의 전문경영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농업인력육성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농촌영양개선연수원을 농촌생활과학연구소로의 확대, 개편이 이루어지고, 농촌사회개발연구소가 신설되도록 확대, 정비하고, 농촌지도사업의 과학화, 농촌지도공무원의 능력향상 및 전문, 특기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연구직과 지도직의 차별화가 시정되어 직제정원을 연구,지도직으로의 복수직제화 또는 연구, 지도직을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가나안 농군학교

가나안농군학교의 이념은 근로, 봉사, 희생의 3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그 바탕으로 참 살길을 걸어가는 인간으로 만드는 길로 본다. 즉, 가나안농군학교는 "책임있는 인간" 교육을 위한 인격도야의 수련장으로 이 시대 이 민족이 요구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생활혁명의 교육장이다.

가나안농군학교의 교육목표는 사회의 변화와 역할의 강화에 따라 점차 첨가되고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제 1기는 60년대로 농촌지도자 양성에 있었다고 한다면, 제 2기는 70~80년대로 국민교육 시대라고 할 수 있고 제 3기는 90년대로 국제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첫째, 농민교육시기는 農群이라는 말을 農軍으로 고쳐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外敵을 막는 육해공군 외에도 빈곤과 부정부패 즉 內敵을 막는 군대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그 內敵을 막는 군대는 농촌지도자라고 생각하였다. 즉 "책임있는 농촌지도자의 양성"이 교육목표였다. 이러한 지도자양성이라는 목표는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에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둘째, 국민교육시기는 1968년 농군학교에서 육군사병의 교육이 시작되면서 부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제대하는 귀농군인에게 기회를 부여했던 것이 의외로 건실하고 개과천선하는 군인이 된 것을 발견하고 뒤에는 군정

신전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된 것이었다. 이 군인정신교육은 확대되었고 제대한 군인이 직장에 진출하면 그 직장에서도 교육의뢰를 하게 되어 전체 직종에 확산하게 되었고 이것이 자연히 국민교육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점차 산업화되면서 이농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농촌지도자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농민교육은 학교경영상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으므로 농민교육을 지속하기 위하여도 그 재원을 타교육을 시켜서 얻는 수입으로 보충해야 할 필요에서 절충을 하게 되었다. 이 국민교육의 단계에서 교육은 전문화되어 민족정신교육이라는 교양과목과 전문적인 농촌지도자 내지는 영농후계자 양성이라는 두 분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셋째, 국제교육시기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농군학교가 외국인의 교육요청의 증가에 따라 변화를 시작한 시기이다. UR과 관련하여 한국인의 국제적 이해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외국인의 교육은 농군학교의 분교를 태국, 방글라데시에 세우기도 하였다.

교육목표의 변천에 따라 그 내용도 많은 변화와 확장이 불가피 하였다. 그리하여 초창기 가족이 모체가 되어 운영하던 학교가 점차 전문인력을 영입하게 되고 학교체제를 갖추게 되었는데 각 단계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농민교육 단계의 내용을 보면, 농민의 의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던 일가선생은 농민의 정신교육으로, 회의법, 인간관계 훈련, 지역사회개발의 실제 등을 가르쳤고, 기술교육으로는 농업경영, 농업경제, 특히 포도, 잣고, 양축, 양토, 복숭아와 작약, 황무지 개간법, 고구마 12개월 저장법 등을 가르쳤다.

국민교육 단계의 교육내용을 보면, 군인정신전력 증강을 목표로 하는 군인교육에는 농업기술을 필요로 않아 주로 참살의 길, 지도자적 인품, 또는 애국정신 등을 가르쳤다.

국제교육 단계의 교육내용을 보면, 근래 동남아시아의 여러나라에서 입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농군학교의 정신과 교육이 한국의 발전의 뿌리가 되었다고 보아 그 기본정신을 배워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들 교육은 대개 20일~1달정도의 기간에 정신 및 생활교육을 철저하게 교육시킨 뒤에 한국의 발전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짰고 저녁에는 분임토의를 통하여 실천계획을 세워 귀국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농협지도자교육원

교육목표는 선진 농민으로서의 국가관 확립, 농협조합원으로서의 주인의식 고취, 복지농촌건설을 위한 협동조직장의 정예화, 농민후계자로서의 성공적 영농정착 유도이다. 그리고 교육방침은 협동조직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교육과 정신교육의 병행 실시, 지역단위 조직강화를 위한 조합별 집단입교, 교육생과 교수의 전원 합숙교육, 사례 발표와 분임토의를 통한 상호교육, 적극적인 사후 지도와 효율적인 지원이다.

교육대상은 회원농협의 농민조합원 및 그 가족과 조합임직원이며 농민조합원 중에서도 협동조직장이 주요 대상이다. 비조합원은 '91년부터 개설되고 있는 농촌주부 대상의 주부대학과정이다.

교육체계는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정규과정은 조합단위의 농협신분별로 임직원, 협동조직장(영농회장, 부녀회장, 작목반장), 농민후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질성이 있는 교육대상자가 단위농협에서 10명 또는 20명 단위로 집단입교하여 교육을 받도록 편성하였다.

이들 교육대상자의 특징은 첫째, 같은 조합(지역)에서 일 정규모로 집단(set)입교하여 수료생끼리 결집력을 강화하고 교육받은 내용의 실천에 있어 동조자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별·연령별·농협신분별 다양한 계층이 모여 학습함으로써 농촌사회에서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 의식을 높여주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연령이 높아져 가고 있다. 넷째, 학력수준이 점점 낮아져 가고 있어 사고방식이나 태도 등이 덜 혁신적이고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며 소극적이고 보수성을 띄는 경향이 있다.

농업, 농촌, 농민을 이해하기 위한 과목으로는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나라경제와 우리의 농업」이 있으며, 농협운동과 협동조직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한 과목으로는 농협운동과 협동조합장, 새농협운동과 수료활동이 있으며, 농촌과 농협 및 농민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과목으로는 지방화, 개방화 시대의 새농민의 자세 등으로 주로 정의적 영역 중심의 정신계발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소집단 학습기회 확대에 의한 참여식 상호교육을 중시하여 가르친다 기보다 학습자 자신들이 주어진 자료와 강의에 의하여 스스로 배우고 깨닫기 때문에 학습자는 자신이 사고하고 참여하는 것 만큼 배우게 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담임교수-학습자, 전문강사-학습자, 담임교수 및 학습자-담임교수 및 학습자, 학습자-학습자의 4가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경험위주의 사례발표와 분임토의

를 중시하고 있고, 협동 한마당 잔치행사, 즐거운 노래시간, 수료 전야제 시간 등의 흥미와 동기유발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수요원 전원이 교육생과 함께 합숙생활을 통하여 신념에 찬 모범적인 언행을 숭선수범하므로 교육생들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과 태도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본교육의 특징을 첫째, 사랑으로 하는 교육, 둘째, 뜻으로 하는 교육, 셋째 즐거움으로 하는 교육, 넷째, 몸으로 하는 교육, 다섯째, 더불어 함께 하는 교육이라고 정리하고 전 교직원들이 이를 행동화하고 실천하고 있다.

3. 농촌사회교육의 과제와 방향

네델란드와 일본을 중심으로한 외국 및 세계적 추세와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탕으로하여 이제 앞으로의 당면과제와 방향을 개괄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농촌사회교육의 목적은 다원화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가발전을 위한 농촌사회교육에서 농민의 복지증진과 자아실현을 위한 농촌사회교육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촌주민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힘을 배양하여 농촌주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농촌사회교육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농촌사회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는 변화하는 농촌사회교육의 목적과 농촌실정에 맞추어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적인 측면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농외소득의 증대, 경영과 유통의 합리화 도모, 그들의 정당한 권익을 옹호하고 능동적으로 현실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적인 협동력 함양, 환경보호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능력과 합리적인 소비생활 함양,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주민의식 배양, 전통문화를 계승시킬 수 있는 능력 배양, 정보수집 및 처리능력의 함양 등이 될 것이다.

셋째, 농촌사회교육의 체계에 있어서는 관(官) 주도의 일방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벗어나 농촌주민이 농촌사회교육의 계획, 실천, 평가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각종 의사결정도 농촌주민이 주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농촌주민이 능동적으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농촌주민의 업종별, 계층별 대표가 농촌사회교육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각급단위 농촌지도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도화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농촌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농업관련기관, 농민, 나아가 온 국민이 협력해야 하며, 농촌사회교육은 각종 농민교육기관별로 특성을 살려서 각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살려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이 통합된 교육체계를 이루어 나가면 좋을 것이다.

다섯째, 농촌주민이 농촌사회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농촌사회교육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각종 교육활동에 대한 홍보는 그러한 노력의 한 예가 될 것이다.

여섯째, 농촌사회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는 교육현장의 교육내용이 실제 생활에 바로 연결되도록 현장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여연구나 참여교육과 같은 새로운 접근방법이 보급, 적용되면 좋을 것이다.

일곱째, 환경보존을 위한 지속적 농업과 생태환경자원을 위한 농업지식체계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모든 개발활동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환경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농촌사회교육은 지도내용, 인력, 예산 등의 측면에서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여 왔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의 다원화, 개방화, 그리고 국제화 등의 제 상황에서 농촌과 농업발전 그리고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에 보다 효과적으로 공헌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이고 행정독려적인 지난 날의 농촌지도체제에서는 완전히 탈피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즉 농촌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농민 중심의 사회교육적 실천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촌사회교육의 기관, 내용, 방법에서 다양화, 다원화되어야 하고 민주화, 민간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험기관, 실험농장, 지도팀, 연구클럽, 전문지, 전문조언가 등과 때때로 자문역할을 하는 유통조직, 협동조직, 농산물 상회회사 등이 특별영역으로 구성되어 농업에 종사하는 정책입안자나, 농촌지도교육 및 연구, 농민 및 그외의 관련자들은 그 각각을 개별적인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농업지식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I. 결 론

이제까지 살펴 보았듯이 농촌사회교육은 상당히 오래전

부터 있어 왔지만 실제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기 시작한 것은 농촌지도사업이 시작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농촌사회교육으로는 농림수산부 외청인 농촌진흥청의 농촌지도사업, 민간단체 농촌사회교육의 대표적 기관인 가나안농학교에서 행하는 농민의식교육, 농업협동조합의 농협지도자 교육원에서 행하는 농촌사회교육이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세 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본 우리나라 농촌사회교육은 농촌사회가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를 망라할 만큼 다양화되고, 양적인 면만이 아니라 질의 면에서도 크게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농촌사회교육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촌사회교육은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아진다. 즉,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농촌주민이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촌주민의 요구와 가치의 변화에 수반한 농촌사회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도 시인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한국사회는 물론 한국농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국제적 상황도 농촌사회교육에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바 농민주도의 새로운 사회교육이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에 따라 농촌사회교육 실천은 특히 농촌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농민주체의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촌사회교육기관은 내용, 방법에서 다양화되어야 하고 실천의 상당부분은 민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연구사업에 농민을 많이 참여시켜 농민들의 의사가 연구에 많이 반영되도록 하여 농민들이 농업현장에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농업은 생태계보존과 환경보존을 위한 지속적 농업이 되도록 생태환경 자원을 위한 농업지식체계를 구성하는 농촌사회교육 실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농촌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교육적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해 농촌사회교육의 실천에 대한 연구가 계속 강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보다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적 요

이 논문은 30여년간의 농촌사회 변화의 모습과 그 동안의 농촌사회교육의 실천이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가를 탐구하

여 앞으로 농촌사회교육의 과제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려고 한 것으로서 이 논문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세가지의 농촌사회교육기관의 비교함으로써 세 사회교육기관의 장단점과 개선방안을 알 수 있다.

둘째, 농촌사회변화에 따른 농촌사회교육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알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농촌사회문제 해결의 사회교육적 접근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계봉명, 정득진, 1988, “벼품종 비교포의 전시효과와 관련변인”,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0:4, 13~21.
2. 계봉명의, 1983, “쌀증산 기술지도를 위한 자율시범단지 회장의 활동효과에 대한 다변량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5:1, 57~66.
3. 광기상, 김성수, 1984, “한국농업교육, 농촌지도에 있어서의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의 이용”, 서울대 농학연구 9:2, 105~113.
4. 권오홍, 1978, “충청북도의 지역농업 개발계획”,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0:1, 39~46.
5. 권일남, 김성수, 1989, “농촌개발을 위한 발전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고찰”,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1:2, 43~53.
6. 금동혁의, 1975, “농업기계 기술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7:1, 77~83.
7. 김경미, 1991, “농촌에 있어서의 여성과 사회교육”,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3:4, 59~66.
8. 김대회, 최민호, 1989, “농촌진흥청과 농협의 지도사업 연계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1:4, 61~72.
9. 김선요, 1976, “농촌개발을 위한 농업방송의 한 실천모형”, 한국농업교육학회지 9:1, 40~44.
10. 김선요, 정지용, 1976, “동계농민교육이 농업기술 수용과 생산량에 미친 영향: 1개 부락 실천연구의 사례”, 교육학연구 14:1, 42~58.
11. 김성수, 1986, “일선 농촌지도 조직의 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8:1, 27~35.
12. 김성수의, 1991a, 농촌, 농업교육의 방향. 서울: 교육과학사.
13. _____, 1991b, “문제해결적 접근방법에 의한 종합농촌개발계획”,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3:1, 33~44.

14. 김성수, 서규선, 1984, “농촌개발커뮤니케이션의 모형개발에 관한 고찰”, 서울대농학연구 9:1, 155~166.
15. 김진화, 정지웅, 1989, “농민교육참여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1:4, 73~91.
16. 김태호, 1990, “전환기 농촌사회교육의 위상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2:3, 77~83.
17. 김평훈외, 1989, “전남농촌지역의 사회새마을교육 요구 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1:4, 19~38.
18. 농촌개발연구회편, 1988, 농촌개발론, 서울: 형설출판사.
19. 농촌진흥청, 1982, 한국 농촌지도사업 발전과정.
20. _____, 1992, 농촌진흥 30년사.
21. _____, 1993, 한국의 농업주요지표.
22. 동열모, 1978, “농촌종합개발의 개념 및 접근전략과 사례평가”,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0:1, 34~38.
23. 림영철, 1993, “민간단체 농촌사회교육의 과제와 전망: 가나안농군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5:3, 62~69.
24. 박태식외, 1974, 신계 농촌지도론, 서울: 향문사.
25. 서규선, 김성수, 1993, “농촌사회의 여건변화와 농촌지도사업의 과제”,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5:3, 48~55.
26. 손삼곤, 1978, “농촌청소년 농기계훈련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0:1, 25~33.
27. 손삼곤, 박종귀, 1985, “겨울철 농민교육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7:1, 39~42.
28. 송기학, 홍성찬, 1975, “지역사회학교의 농민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7:1, 43~47.
29. 송해균외, 1992,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영농후계자의 영농기술능력”,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4:1, 1~32.
30. 송해균, 1987, 농촌생활개선택지도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31. 송해균, 박태식, 1972, “농촌지도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4:1, 87~95.
32. 신건식, 1982, “농업기술발전을 위한 홍보교육의 체계”,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4:1, 19~29.
33. 왕인근, 1990, “아프리카 농촌지도사업의 문제적 현황”,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2:2, 1~9.
34. _____, 1971, “농촌지도사에 대한 역할기대”,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1, 49~51.
35. _____ 외, 1970, “선택적 전달매개적 변수와 권장농업기술 수용”,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1, 101~112.
36. 이무근외, 1986, “사회교육기관(시설)의 실태조사분석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8:1, 19~25.
37. 이상하, 서규선, 1990,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의 성과와 발전과제”,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2:4, 39~48.
38. 이양후, 최은숙, 1976, “농촌생활지도자의 인구/가족계획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교육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8:1, 100~107.
39. 이용환외, 1979, “농민의 커뮤니케이션 매체접촉과 정보인지”,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1:2, 1~9.
40. 이용환, 1972, “미국의 농촌지도사업: 역사적 배경, 철학 및 목적,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농업교육학회지 4:1, 71~78.
41. 이용환, 권오홍, 1976, “농업기술 공보활동의 효과 제고를 위한 시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8:1, 16~21.
42. 이종만, 1991, “평생교육 이념하에서의 농촌사회교육:그 위상과 발전방향”,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3:4, 19~27.
43. 이질현외, 1970, “4H 훈련사업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1, 99=99.
44. 이창식, 김성수, 1984, “농민의 커뮤니케이션 노출행동과 관련특성”, 한국농업교육학회지 9:1, 15~22.
45. 이한기, 김성수, 1988,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실행모형의 설정”,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0:1, 19~29.
46. 정기산, 최민호, 1993, “데이컴 접근에 의한 4H담당 농촌지도사 직무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5:1, 38~43.
47. 정용문외, 1990, “중부지방 농업관광 개발을 위한 장기발전 구상”,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2:1, 55~72.
48. 정지웅, 1993, “변환기 농촌사회교육: 학문적 발전과 그 방향”,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5:3, 30~44.
49. _____, 1989, “산업화에 대응한 농촌주민의 사회적 적응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농사시험연구논집(농업산학협동편) 32, 429~440.
50. _____, 1985b, “변화하는 농촌의 성인교육”, 사회교육연구 10, 90~98.
51. _____, 1976, “농촌사회교육의 현황과 문제”, 계명대학 지역사회교육연구소편,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교육의 역할, 13~19.
52. _____, 1974, “농촌사회교육의 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12:1, 15~28.
53. 정지웅, 김진화, 1989, “농업, 농촌의 구조변화에 따른 농민교육사업의 장기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1:2, 13~22.

54. 정지웅의, 1989, “한국농촌여성의 문해수준”,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1:1, 1~7.
55. 정지웅의, 1984, “농업기술 수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비교분석: 관계기관과의 정보전달매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농학연구 9:2, 33~43.
56. 정지웅 편, 1975, 한국의 농민교육: 한국농민교육지도자 세미나보고, 한국농민교육협의회.
57. 정지웅, 김선요, 1975, “농촌부녀회 기관사업활동과정에서 나타난 농촌부녀자의 지적수준”, 한국농업교육학회지 7:1, 37~42.
58. 정지웅, 최병익, 1992, 농촌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59. 정진석, 1993, “농협발전을 위한 농촌사회교육적 접근”,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5:3, 74~93.
60. 정진석외, 1992, “농협지도자교육의 특징과 학습효율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농협지도자교육에 관한 연구 5, 안성: 농협지도자교육원, pp. 1~129.
61. 주권, 1970, 지역사회개발과 농촌근대화, 서울: 부림출판사.
62. 채관식의, 1966, 농촌지도론, 서울: 홍문사.
63. 최상호, 1986, 새마을형 사회교육의 효과와 그 관련변인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4. 최민호, 1987, 농촌청소년지도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65. _____, 1975, “통일찰비의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7:1, 19~24.
66. _____, 1974, “벼 재배기술 수용과 벼 수량에 영향을 주는 계 요인의 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6:1, 1~30.
67. _____, 1972, “미국 농촌지도 사업계획수립의 고찰”, 한국농업교육학회지 4:1, 79~86.
68. _____, 1969, “농민교육에 있어서 농촌지도사업과 농촌지역사회학교간의 산학협동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 pp. 91~101.
69. 최민호, 강재태, 1985, 농촌지도론: 농촌사회교육적 접근, 서울대학교 출판부.
70. 최민호외, 1989, 종합농촌개발론: 요구분석적 접근의 이론과 실제, 서울대 출판부.
71. _____, 1986, “농가주부의 영농에 있어서의 역할과 지위”,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8:1, 49~57.
72. 최병익외, 1988, “영농후계자의 사회교육 요구분석을 통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0:1, 31~44.
73. 최영찬, 1991, “농촌지도사업 체제와 컴퓨터 농업정보체계의 발전에 대한 조명”,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3:3, 95~108.
74. _____, 1989, “컴퓨터를 이용한 농업경영과 농촌지도: 그 실태와 전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1:4, 107~118.
75. 최원개, 1987, “새 영농후계자의 추수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9:1, 1~6.
76. 鈴木敏正, 1993, “일본에 있어서 농촌사회교육의 전략”,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5:3, 24~29.
77. Kapuku, Mudipanu, 1991, A Comparative Study of Farmers' Education in Korea and Zaire (1960~1990): A Lifelong Learning Perspective on Educational Reform for Rural Development, Unpublished Ph. D.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78. Kapuku, Mudipanu & Sung Soo Kim, 1989, “The Conceptual and Theoretical Frameworks for Communication with the Farmers in the Development Process”,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1:4, 39~60.
79. Lee, Jil-Hyun, 1969, “Economic Value of Korean Farmer Education: Their Earnings and Productivity”,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 69~89.
80. Nam, Seung Hee, 1988, The Role of Nonformal Education in Community-Based integrated Rural Development(CBIRD) in South Korea: A Configurational Analysis, Unpublished Ph. D. Thesis, Indiana University.
81. Roeling, Niels, 1993, “Strategies of Rural Adult Education in the Netherlands: Present Situation,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s”,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5:3, 1~17.